

미국: Peace Mission P. O. Box 5537 Lynnwood, WA 98046-5537 (425) 742-5577

평화 선교회: peacemission7@hotmail.com

한국 : 010-4758-1605 (박노희 집사)

선교사: 이태형, 이줄리 philipthlee@gmail.com

www.facebook.com/pm.moldova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21)

온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마음과 생활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에 전염되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몰도바의 복음을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과 가정과 삶을 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시며 평안케 하심을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제든지 맨 앞자리서 온 몸으로 제일 기쁘게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서있는 저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자매 ‘나타샤 뚜착’(Наталия Тучак) 자매를 소개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한 것은 10 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법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하였고, 몇 년 전에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타샤 자매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의 교회를 위한 헌신 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주일 예배의 헌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5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의 헌금 정리를 맡은 후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도와주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정말 꼼꼼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헌금정리가 끝난 후에는 친교시간 후 교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부엌까지 돌아보면서 더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교회 대청소 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는 자매인데, 청청병력 같은 암이 걸렸다는 소식에 모든 교우들이 놀랐습니다. 그후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후 또 다른 곳에 전이된 것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계속 병원 치료하면서 모든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자매가 이러한 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을 잃지 않고 맡은 사역과 교회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청소년 센터 건축이 마무리되어 사역을 시작하면 나타샤 자매가 센터의 사무실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못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부담감과 동역자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줄리 선교사의 건강이 하루 속히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태형, 줄리 드림

요즘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평화 교회’의 주일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성도들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를 멀리 하고 앉아 예배하지만, 먼 곳에서 어떤 분은 두번씩 버스를 갈아타면서 오셔야 하는 나이 많은 교인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감사함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몰도바에 돌아가지

